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1차
- 인문계열(인문사회)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및 제시문	1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4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나], [다], [라], [마]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속성에 근거하여 [가]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바]와 [사]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9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현지 시각) 미국 내 아시아인 인권 단체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stop AAPI hate)’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아시아계를 겨냥한 사건 피해 신고가 908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9건꼴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언어 폭력(63.7%)이었다. 접촉을 피한 사례는 16.5%, 신체적 공격을 가한 경우는 13.7%였다. 피해자를 향해 기침하거나 침을 뱉는 사례도 8.5%나 됐다. 국내의 경우,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자 시민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중국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돼 중국이 국내로 전염병을 옮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지난 3월 대구 신천지 예수교회,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의 집단 감염을 거쳐 코로나19는 곳곳에서 ‘혐오의 전염’을 일으켰다. 중국동포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민, 성소수자 등 전염이 확산된 집단이 타깃이었다.

- 『조선일보』 기사(2021. 8. 13.) 및 『헤럴드 경제』 기사(2020. 12. 28.) 재구성

[나] 사회 집단은 소속감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집단은 개인이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집단이다. 내집단 구성원들은 ‘우리’라는 강한 동질감을 갖고 서로에 대해 동료애와 유대감을 느낀다. 이와 달리 개인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을 외집단이라고 한다. 외집단은 우리와는 다른 타자들의 집단으로 여겨지며 이질감을 넘어 종종 경쟁이나 적대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내집단을 ‘우리 집단’, 외집단을 ‘그들 집단’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와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집단에 대한 강한 정체감은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집단이 발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천재교육)

[다] 전염병은 신화보다 더 까마득한 과거부터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온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류는 병원체 자체가 아니라 감염이나 오염의 단서가 감지되는 사물이나 사람을 멀리함으로써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긴 진화의 과정이 만들어낸 일종의 경보장치, 그것이 바로 행

동면역체계입니다. 행동면역체계는 오염과 감염을 암시하는 단서, 즉 오감의 자극에 역겨움으로 반응해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직관적인 예방시스템입니다. 냄새, 모양, 색깔 등이 배설물을 연상시키는 사물을 접할 때나 병에 걸린 것처럼 끔찍하고 기침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 활성화 되죠. 행동면역체계는 적합한 자극만 주어지면 위험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야 잠재적인 감염이나 오염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과 접촉하지 않거나 환자를 집단에서 방출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대처방안이 없었던 과거에는 훌륭한 적응적 가치를 가졌던 예방시스템입니다. 물론 좋은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 경보장치가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대상들에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면 실제로 크게 위험하지 않은 대상을 잘못 혐오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집단에서 배제하고 추방하거나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박한선·구형찬, 『감염병 인류』 재구성

[라] 강렬하고 열렬한 증오는 오랫동안 냉철하게 버려온, 심지어 세대를 넘어 전해온 관심과 신념의 결과물이다. (중략) 그 패턴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의도적으로 현실을 협소화하는 시각이다. 여기에서는 이주자들 개개인의 유머감각이나 음악성, 숙련된 기술 또는 지적, 예술적, 감정적 특성과 관련한 언급이나 정보나 이야기는 전혀 없다. 하다못해 이주자들 개개인이 겪은 불행이나 약점이나 편협함 등에 대한 보도도 없다. 사실상 거기에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전체를 대표하는 표상 뿐이다. (중략) 그렇게 협소한 시각은 무엇보다 먼저 상상력을 훼손한다. 난민들을 언제나 집단으로만 다룰 뿐 결코 개개인으로 다루지 않고, 무슬림을 테러리스트 또는 미개한 ‘야만인’으로만 혐오스럽게 묘사하는 토론 포럼이나 출판물의 심각한 문제는 이주자들의 다른 면모를 상상하는 일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상상력을 펼칠 여지가 축소되면 감정을 이입할 여지도 줄어들다. 무슬림으로서 또는 이주자로서 지닌 무한한 존재의 가능성을 단 하나의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을 집단과, 집단은 언제나 그 속성들과 하나로 결합된다.

-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마] 불공평한 결과에 대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길을 택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고한 사람이 강간당할 수 있고, 차별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워진다. 차리리 그들의 운명이라고 믿으면 훨씬 안심된다. 그래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의 한 변형은 ‘그럴 만한 평판’으로 이유를 대는 것이다. 마치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아왔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자기보다 외집단의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한 행동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하게 한다.

- 엘리엇 아론슨 외, 『사회심리학 (제9판)』

[바] 우리가 지닌 범주들이 불변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범주란 마음과 세계가 만나 빛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일 뿐이다. ‘우리-그들’ 코드는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으며 당신에 의해 매일 새롭게 만들어진다. 특별한 기회와 약점들을 지닌 그러한 힘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은 당신이다. 당신의 인간 부류 코드는 당신이 행동하기로 결

정하지 않는 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그들’의 코드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코드를 지배한다. 인간 부류를 믿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힘은 당신의 본성이다. 그러한 힘을 마음에 설치된 일련의 버튼과 레버로 생각해도 좋다. 그러한 버튼과 레버는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

- 데이비드 베레비, 『우리과 그들, 무리짓기에 대한 착각』 재구성

[사] 대중은 미리 전향자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정사실이 그들을 바꾼다. 차별이 제거될 때 편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악순환이 스스로 뒤집히기 시작하는 것이다. 고용, 주거, 군대에서 차별 철폐는 다른 민족에 대해 더 친근한 태도를 낳는다. 그리고 여태껏 분리되어 온 집단을 통합하는 일이 흔히 예상하는 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이 입증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처음 가동하려면 대개 법이나 강력한 행정 명령이 필요하다. 뉘르달이 말한 ‘누적의 원리’에 따르면, 흑인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백인이 지닌 편견을 낮출 것이며 그것이 다시 흑인의 삶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법이라는 최초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 선순환이 확립될 수 있다. 입법 이전에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전적으로 참은 아니다. 적어도 교육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입법 자체가 교육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고든 올포트, 『편견: 사회심리학으로 본 편견의 뿌리』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핵심이 되는 사회 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여러 보편적 속성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속성들과 주어진 사회 현상 간 관련성을 분석적,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에 기반하여 주어진 사회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혐오와 비난,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나]~[마]에 제시된 인간의 속성과 연관지어 분석적,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바], [사]에 제시된 관점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나]에 의하면 인간은 내집단과 외집단 즉,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가] 현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이 속한 집단을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적대적이고 배타적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인간의 행동면역체계를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감염병에 걸린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해서 혐오 반응이 과잉 일반화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에 기반하면 [가] 현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을 회피하려는 행동면역체계의 반응이 그 개인이 속한 집단으로까지 과잉 확장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개개인의 차이와 고유한 특성으로 구분되어 인식되지 않고 혐오스러운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가] 현상은 아시아인, 중국인, 성소수자 등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의 고유한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코로나19 전파 위험이라는 혐오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서만 인식되기 때문에, 혐오와 비난, 차별과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설명할 수 없는 불평등한 결과를 희생자 탓으로 돌림으로써 세상을 정의롭고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인간의 동기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가] 현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그들이 속한 집단을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비난하고 탓함으로써 세상의 정의와 안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바]는 비록 인간이 ‘우리’와 ‘그들’로 범주화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성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혐오와 편견이 [나]~[마]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며, 이를 인지하고 바로잡는 선택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시문 [사]는 입법을 통해 현실을 바꾸면 이를 통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받는 집단의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채점기준]

- [가] 현상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나]~[마]에 제시된 인간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마]에 제시된 인간의 속성을 논리적, 분석적,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바]와 [사]에 제시된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가]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바]와 [사]에 제시된 관점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도출하였는가?

[유의사항]

- [나]~[마]를 단순히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기반하여 [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나]~[마]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바]와 [사]의 관점을 단순히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기반하여 [가]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여야 함.

4. 예시답안

[가]는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된 집단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나]~[마]에 제시된 인간의 고유한 속성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먼저, [나]에 따르면, 인간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고,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한 집단을 외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표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실제로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감염 위험을 암시하는 특성이 있는 대상에게 혐오를 느끼고 피하는 행동면역체계를 발달시켰다. [가]는 행동면역체계가 과도하게 작동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된 집단 전체에 혐오가 과잉 일반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라]에 따르면, 외집단 구성원은 고유한 개인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오직 집단의 속성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집단의 사람들도 감염 위험이라는 속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어, [가]에서와 같이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 끝으로, [마]는 부조리한 결과를 희생자 탓으로 돌림으로써 세상을 정의롭고 안전한 곳으로 인식

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을 제시한다. [가]의 현상도 코로나19가 확산된 집단을 비난하고 탓함으로써 정의와 안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의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가]의 혐오 현상이 인간의 고유한 속성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필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와 차별을 야기하는 인간의 속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입법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규제하고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